

Her 영화 감상문

휴먼지능정보공학과 201910803 박채희

Her 영화는 남자 작가가 컴퓨터의 학습형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공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만다는 매우 학습이 잘 된 인공지능인 것 같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학습하여 인간과의 감정을 교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자 작가인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현재 인간의 말과 표정 등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인공지능 분야는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감정' 자체는 특정한 벡터로 인해 학습하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말과 얼굴표정 외에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가적인 외적, 내적 요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여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자신의 감정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한 감정을 연구하고 정의하여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영화에서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만, 육체적인 교류는 할 수 없어 진짜 사람의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Her' 영화의 인공지능 운영체제들은 사람과 로봇(AI)과의 '사랑'에 관한 상호작용을 한다. 현재 인공지능들은 인간과의 깊은 감정교류까지는 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분명 감정교류가 원활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이에 따른 한계점과 대비책을 잘 설정해 놓아야 하고, 인간과의 건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도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